

패널토의

문화 충격

이원희

(뉴저지주 드루대학
간호학박사 과정 이수중)

머릿말

1960년대의 이민법의 개혁이후 한국이민자가 증가되고 있다. 미국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우리 한국사람들은 근면하고 충실한 인종으로서 평가 받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고층, 심리적 갈등등은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된 것이 별로 없다.

Culture Shock이란 단어가 1954년 Oberg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가 되고 소개가 되었다. 그는 Culture Shock을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갈때 그 반응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다"라고 정의하고 그 질병은 각 개인이 종래의 행동양식들이 더이상 쓸모가 없는 생소한 입장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기 문화에서 쓰여지던 상징(symbol), 표시(sign), 신호(cues)들이 그 의미를 상실하므로써 유발되는 불안감과 uncertainty에서 오는 증상이다. 나는 culture shock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

Life Process에서 새로운 사회제도에 적응이란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배움의 과정(learning process)이다. 이민은 우리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우리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온것이 누구를 위해서 와준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작용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것을 살펴보면 공포, 좌절, 적대감, 고립, 불안정, 상실감, 자

존실상실, 무의미, 생리적인 증상, 긴장, 분노, 향락, 걱정, 위협, 배척, 고독, 실패감, 당황 그리고 dislocation등을 경험하는 경향이 많다.

문화적응 단계

여러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런 재적응을 하는데 까지 단계가 있다고 이론화 하고 있다. Dubois는 관찰기, 적응기, 타협기, 조기이탈기로 나누며, Sill은 이 문화적응 단계를 발견(discovery), 자기정돈(self-alignment), 참여(participation), 퇴화(devolution)로 분류하고 있다.

또 Richardson은 초기만족(initial satisfactory), 자기확립(identification), 문화동화(assimilation)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쉽게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제 1 단계는 신혼기로서 새로운 환경에 흥분이 되어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이들의 습관 언어를 빨리 배우려는 욕망이 대단하다. 관광으로 호기심도 채우고 새 직장등 고향에서 꿈꾸던 모든 목표를 성취하려는 희망에 가득 차 있다.

제 2 단계는 위기 또는 환멸의 단계로서 초기의 신기하고 호기심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시간낭비와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방식, 사고방식만을 고집하는 것 같고 또한 이나라 가치관의 입장에서 자아를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자부심을 인정 못받으므로써 불만과 동시에 고독감을 느끼며 이 나라를 탓하게 됨을 볼수 있다. 불안감, 이곳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감정, 우울증, 퇴보감(withdrawal), 좌절감 때문에 생기는 분노의 폭발은 자기 동족들만 만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제 3 단계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행동양식을 배우고 미국의 좋은점을 발견하고 사회참여를 시도한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소한 문화적 실수가 있어도 더 이상 자아를 괴롭히지 않는다. 친분관계가 발전되어 생활의 편리함을 즐기고 새로 도착하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 줄수 있게 된다.

스트레스의 요인들

제 4 단계는 모든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Stress의 요인들을 열거해 보면

1) 언어장애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 같다. 농담, 속어, Accent, Speed 등도 언어장벽에 속한다.

2) 음식, 교통수단, 주택양식가구, 기구들의 다른 점등.

3) 고집 : 언어장벽으로 한국사람과만 교통하기 원하므로 더욱 미국사회와 괴립

4) 습관의 변화—부인의 직장생활, 남자의 lower-employment, lower social status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 경제적 곤란.

5) 태도, 가치관의 차이점—개인주의, 타애주의, friendship의 차이 royalty, obedience to authority에 대한 개념의 차이 등에서 오는 stress를 들 수 있다.

6) First name, touch-time perception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 인한 실수는 심리적 갈등이 생긴다.

Culture Shock을 회복하고 새 환경 적응에 필요한 것은 ①인식도(cognitive map)의 재조직 ②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관습을 익히는 것 ③경험에 비추어 이전에 배운 정의들의 변화 그리고 ④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 등이 요구된다. (hallowell)

이런 것을 배우는데 미치는 요소를 보면 나이, 경험, coping style등이 있다. 즉 어린이가 어른보다 빨리 적응되는 것도 아직도 버릇이나 cognitive map이 아직 형성되어 가고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어른처럼 행동양식이 형성되면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더 걸리고 힘이 든다. 그리고 과거 경험이 있거나 기대한 것과 현실의 차이가 적을 때 적응이 빨리되며 융통성 있고 성숙한 처리방법(coping style)이 가능할때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이 빠르고 쉽게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쪽의 입장과 상황을 이야기했

지만 acculturation(새로운 문화의 동화)란 two way process이다.

Linton이 말한 대로 소수민족 문화가 Host culture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수반되어 상호 가감 수정 완화(modification)하고 적응하여 이 두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acculturation이다. 여지껏 말한 것과 Nursing Practice가 무슨 관련이 있나를 살펴보자.

미국은 복합문화로 형성된 나라이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Health care system이나 교육을 보면 일원화 되어 있다. 특히 극소수의 간호원, 간호교육자, 연구자들이 이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curriculum에서 anthropology를 필수로 해서 사회문화적요소의 중요성이 병에 대한 개념, 치료방법 등에 수반되어야 한다. Nursing assessment할 때 간호원이 이런 cultural change에서 오는 stress의 가능성을 포착할때 Nursing care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Nurse-patient interaction은 그들의 건강, 질병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행해진다. 환자가 두가지 health care system을 쓰고 있을때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다. 때로는 문화 배경이 다르며 언어소통이 안되고 가치관이 다를때 생기는 간호원과 환자와의 갈등을 간호원들은 일반적으로 그 환자를 비난하는 것도 있다. 피차 이상한 환자가 소리 많고 요구가 많다는 등 환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보다는 쉽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이다. McGregor에 의하면 이런 갈등의 태소는 간호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남에게 impose하기 전에 우리는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환자 간호의 첫번째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이해 존경 인정 compassion이 있을 때 문화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Margaret Mead가 한말을 보면 “고통당하고 겸에 질린 슬픔을 당하고 있는 환자에게 나의 부드러운 손과 인간성이 있으면 언어가 필요없다. ㉠